

조조요금 1천원 할인 ... 심야고객에 맥주 제공

광주 극장가 여름방학 쿨~ 이벤트

올 상반기 관객 유치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지역 극장가들이 명절과 함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31일 지역 극장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관람객수는 약 590여만명. 이중 6월까지 동원 관객은 260여만 명이었다. 반면 올 상반기 관람객은 240만여명으로 지난해보다 20만명 정도 줄어 들었다. 극장별로 보면 전 대 씨너스점과 CGV 점만 전 대 소폭 상승했고 일부 극장은 최고 30%까지 관객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름 극장가 사정은 씩 나은 편은 아니다. 지난해 7~8월의 경우 8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화려한 휴가'와 '디워'를 비롯해, 외국 영화 흥행 기록을 세운 '트랜스포머',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의 흥행으로 일부 극장의 경우 주말 동안 2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철중',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시작해 '미이라 3', '다크 나이트'로 이어지는 올 여름 라인업이 지난해보다 약하다는 게 중론이어서 얼마정도의 관객을 모을지 미지수다.

▲가격 인하, 포인트 두배 적립 지역 업계 1위인 상무 CGV와 첨단 CGV, 콜롬버스 하남점과 콜롬버스 상무점은 오는 8월 1일부터 조조 요금을 5천원에서 4천원으로 1천원 할인



명절과 함께 극장가 성수기로 꼽히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멀티플렉스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다. 롯데시네마 광주점은 가격 할인 대신 조조와 심야 영화 관람객에게 멤버십카드 포인트 두배 적립 행사(8월 31일까지)를 진행중이며 롯데시네마 롯데시네마 멤버십 카드 소유자에게는 관람료를 1천원 할인해준다. 또 하미시네마는 매주 수요일을 '멤버십 데이'로 정하고 티켓 가격을 2천원씩 할인해주고 있다.

또 프리미엄 광주제일시네마는 통상사 KTF와 제휴, '쇼 프리미어스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달 한편씩 무료 영화 관람 기회와 동반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메가박스 광주점은 '수강신청'이

벤트를 통해 영화 관람 횟수에 따라 폴라와 팝콘을 제공한다. 하미시네마는 오픈 800일(6월 29일)을 기념해 평일 조조 관람객에게 팝콘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제휴를 맺은 SK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1천원 할인을 증정한다. 또 하미수영장 이용권을 구매할 경우 모든 영화를 4천원에 관람할 수 있으며 하미시네마 티켓 3장을 모으면 자유수영 이용권도 증정한다. 그밖에 씨너스 전대점은 비스포와 제휴, 비스포 회원들에게 1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나무 그늘에 누워 '독서 삼매경'

유명 작가들이 추천하는 여행길 챙겨갈 한 권의 책

성석제 '임격정' 소개. 작가 사진과 책 표지 이미지.

안도현 '강산무진' 소개. 작가 사진과 책 표지 이미지.

신경숙 '체실비치에서' 소개. 작가 사진과 책 표지 이미지.

무더운 여름, 짐통 더위를 피해 시원한 파도나 가슴 속까지 상쾌하게 해주는 삼림욕을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땀방울이 잘린 곳으로 독서 피서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성석제, 안도현, 신경숙 등 내로라하는 유명 작가들이 추천하는 책부터 읽어보자. 사랑이야기부터 역사물까지 다양하다.

인터넷 서점 예스24(www.yes24.com)가 최근 방학과 휴가를 맞아 한국을 대표하는 17명의 작가들이 추천하는 '여행길에 챙겨갈 추천도서 50선'을 선정, 추천리와 함께 공개했다.

특유의 입담과 거침없는 필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작가 성석제는 조선시대의 낭만과 풍속을 담은 소설 '임격정'을 추천했다.

시인 안도현은 김훈의 '강산무진'을 꺼내들었다. 안씨는 "여름휴가가 짧다면 꼭 챙겨라. 여덟 권의 중단편을 모아 놓은 책이니 나무 그늘에 벌렁 자빠져서 하루에 하나씩, 혹은 돌씩 읽으면 좋다. 고집스런, 무뚝뚝한, 차갑고 객관적인 묘사로 일관되는 김훈의 문장 때문에 당시는 서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 '의판방' '깊은 슬픔'으로 잘 알려진 작가 신경숙과 최근 소설 '중선을 샀어'를 발표한 조정란 작가는 장편소설 '체실비치에서'를 선택했다.

신씨는 "읽어갈수록 앞으로 읽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조씨는 "올해 읽은 소설 중 가장 빛나고 품격 있는 연애소설"이라고 극찬했다.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원작자인 소설가 김탁환은 오르한 파묵의 에세이집 '이스탄불-도시 그리고 추억'을 권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자인 오르한 파묵은 이 에세이집에서 자신의 고향인 이스탄불에 대한 감상을 사실적이고 꾸밈없이 풀어냈다.

곡식 출신 소설가 공선옥은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을, 신달자는 마르크 드 스페트의 '침묵에찬'을 꼽았다.

이밖에 권지혜, 김경옥, 김형경, 서유미, 심윤경, 윤대녕, 윤성희, 이병철, 정경민 작가가 '여행길 동반자'가 되어줄 책들을 추천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우제길미술관 우수진행상

"목향 그윽한 한국화 보러 오세요"

제3회 2008뮤지엄 페스티벌

광주 우제길미술관이 한국사립미술협회 주최로 열렸던 '제3회 2008뮤지엄 페스티벌-예술체험 그리고 놀이'(5월1~5월31일) 행사에서 우수진행상을 받았다.

뮤지엄페스티벌은 해마다 가족의 달 5월을 맞아 전국의 사립미술관들이 벌이는 대규모 미술 축제이며, 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 미술관을 뽑아 시상하고 있다.

우제길미술관은 광주지역 추상미술 그룹 '에뽀' 회원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추상화를 그린 뒤 완성품을 전시하는 '아트 북북-추상미술 따라하기' 행사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우제길 관장은 "미술관의 기능이 전시 위주에서 교육으로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면서 "추상미술을 테마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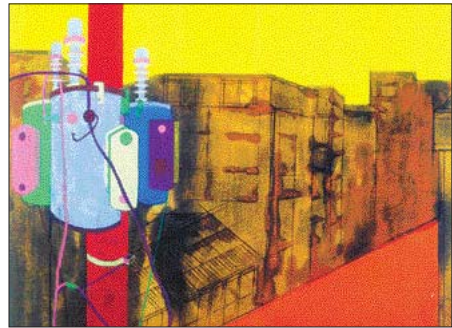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리고' 회원전, 일곡갤러리

한국화 청년작가 그룹인 '그리고'(회장 강대환)회원들이 오는 8월1~13일까지 일곡갤러리에서 단체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대환, 김진주, 도수연, 박성환, 김인택, 손지선, 송영학, 윤준영, 이지은, 정해영씨 등이 참여해 목향 그윽한 한국화를 선보인다.

누드 드로잉, 부채, 한지를 뜯어 붙인 추상화 등 젊은 작가들의 감각이 살아있는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또 정치 비판 등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도 눈에 띈다.

도수연씨는 의자에 의지한 채 한숨을 쉬는 남성의 뒷모습을 누드로 표현했고, 배일섭씨



강대환 작 '또 다른 시각'

는 국민의 입을 가린 채 자신의 말만을 내뱉는 정치인의 위상을 풍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8월의 읽을 만한 책 10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는 2008년 8월의 읽을 만한 책 10종을 선정·발표했다. 위원회가 선정된 책에는 박경리 선생의 유고 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마로니에북스)를 비롯해, 13가지 책에 얽힌 테마로 조선사를 살펴 본 '조선의 흥취 위험한 책들(글항아리) 등

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갈라파고스) ▲사이버트렌드 2.0(집문당) ▲천문대 가는 길(이음) ▲히치콕 : 공포의 미로 혹은 여행(나무야이야기) ▲유럽의 걷고 싶은 길(미래엔) ▲오늘은 기쁜 날(남은산) 등도 선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kpec.or.kr)의 웹진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관람료 지원 공연 공모

CJ문화재단

CJ문화재단은 관람료 30%를 지원받을 클래식 음악과 무용 공연 등을 8월1~14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심사를 통해 지원작으로 선정되면 CJ문화재단으로부터 한 작품당 최고 5천만원까지 관람료 30%를 후원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관객들은 30% 낮아진 가격으로 티켓 구입이 가능하다.

CJ문화재단은 순수예술 공연 관람료를 후원해 공연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올해 3월 1차 공모를 통해 3개 공연을 선정, 총 1억3천만원의 관람료를 지원했다.

희망하는 단체는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www.cjculturefoundation.org)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726-8526. /연합뉴스



메가박스 Megabox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미이라3-황제의무덤' and '눈에는 눈'.

엔터 시네마 Enter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and '원티드'.

콜롬버스 시네마 Columbus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미이라3-황제의무덤' and '100피트'.

씨너스 전대 Cinera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100피트' and '눈에는 눈'.

하미 시네마 Hami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눈은 먼곳에' and '100피트'.

제일 시네마 Jeil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미이라3' and '눈에는 눈'.

